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 쇠퇴의 심층구조와 교육 왜곡

A Study on the Declining of School Library Movement of the 1970s and 1980s in Korea

김 종 성 (Jong-Sung Kim)*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중등 교육의 팽창과 입시경쟁 교육의 고착화
 - 1. 중등 교육의 팽창과 그 배경
 - 2. 중·고교 입시제도의 변화와 교육 팽창
 - 3. 무한 입시경쟁 교육의 보편화
 - 4. 입시경쟁교육의 보편화와 학교도서관의 침체 구조
- III. 국가 교육 이념의 성격과 교육 왜곡
 - 1. 발전교육론과 교육의 도구화
 - 2. 체제 교육론과 집단의식화
 - 3. 국가 권력의 미필적 교의, 학교도서관 말살
- IV. 왜곡된 교육의 반학교도서관적 성격
 - 1. 자율적 사유의 감금
 - 2. 죽음의 교육
 - 3. 식민화 교육
- V. 교육 왜곡의 귀결로서 학교도서관 기능 왜곡과 사서교사직의 소외
 - 1. 학교도서관의 독서실화
 - 2. 독서지도에 대한 편향적 강조
 - 3. 국가 이념의 선전 도구화
 - 4. 사서교사직의 소외
- VI. 나오며

초 록

이 연구는 1970년대 이후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이 침체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규명하는 것이다. 교육인구의 팽창과 그에 따른 입시제도의 변화로 입시경쟁 교육이 보편화되고, 그와 궤를 같이 하여 국가 권력의 반교육적 이념이 교육을 황폐화시킨다. 입시경쟁 교육과 체제유지적 교육의 원리는 철저히 학교도서관의 이념과 원리에 상치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이 침체하고 쇠퇴하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왜소화되거나 편향적으로 고착되고 사서교사직은 학교 현장에서 소외되게 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declining of school library movement in Kore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1970s and 1980s. The writer keeps an eye on the distortion of education in Korea.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I. 들어가며

학교도서관 운동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관찰되는 계기와 배경에 비해 운동이 침체하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배경 요인들은 더욱 더 다양하고 심층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 운동이 일정한 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한층 더 복잡적이고 다면적인 외부 영역의 영향력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운동이 침체하고 쇠퇴하는 과정의 계기와 지형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단선적이며 평면적인 시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층적이며 심도 있는 시각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원리에 따라 연구자는 한국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화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침체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려고 한다.¹⁾ 말하자면 운동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 세력 내부의 판도 변화를 내재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학교도서관 운동이 전개되는 교육 영역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사회 상황들을 외재적 요인으로 상정하여 운동이 침체하고 쇠퇴하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은 글자 그대로 한 가지 맥락의 안과 밖을 이루며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측면의 요인들은 독립적인 성격의 영향 요소가 아니라 서로 조응하고 반영하는 관계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며 나아가 두 측면의 요인들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그 귀결점에 있어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운동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내재적 요인은 외재적 요인에 비해 직접적이며 다소 종속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외재적 요인은 구조적이며 근원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학교도서관 운동이 퇴락하는 현상의 심층적 요인과 구조를 한층 더 적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외재적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결국 내재적 요인도 원천적으로는 외재적 요인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리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 말 이후 우리 나라 교육이 직면하는 몇 가지 새로운 국면들을 조명하고 그와 더불어 진행되는 학교도서관의 소외와 기능 왜소화 현상을 관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서 교육적 의지와 실천의 퇴행을 초래하는 원천적인 힘으로서 국가권력의 반교육적 이데올로기와 무의식의 실체를 먼저 밝혀내려고 한다.

1) 운동 쇠퇴의 내재적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고찰하였다.

김종성, 「1970년대 한국학교도서관 운동의 지형 변화」, 《도서관》 54권 1호(1999 봄), 41-63쪽.

II. 중등 교육의 팽창과 입시경쟁 교육의 고착화

한국의 교육사에서 1950년대를 재건기, 1960년대를 개혁기, 1970년대를 발전기라고 규정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70년대의 한국 교육은 그 양과 질의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 새로운 국면을 대표하는 주요한 경향은 우선 중등 교육의 급속한 팽창 현상과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입시경쟁 교육의 심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다른 한편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강력하고 교묘한 방법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영역의 새로운 국면은 6. 25와 5. 16 군사 쿠데타로 대표되는 격변을 지난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조건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서 1970년대 이후 교육 왜곡의 기본 구조로 작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국면들은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1. 중등 교육의 팽창과 그 배경

1970년대로 접어들어 나타나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변동은 중등 교육의 급속한 팽창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던 초등학교 인구가 1970년을 기점으로 하여 조금씩 감소하는데 반해 중등학교 학생 수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중학교 학생의 경우 1965년에서 1970년 사이 5년 동안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1970년에는 130만 명을 넘어서더니 급기야 1975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는 초고속 성장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학생 수는 1975년을 기점으로 하여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지만 1985년에는 약 280만 명에 육박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 수 팽창의 결과로 1960년 당시 전체 학생 인구의 약 12%에 머물던 중학생은 1975년에 20%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1985년에는 25%를 차지하게 된다.²⁾

고등학교 학생 수의 경우도 중학교 학생 수와 유사한 패턴을 따라 증가한다. 1970년까지 비교적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던 고등학생 수의 경우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10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1970년 59만 명이던 고등학생 수는 5년 후인 1975년에 110만 명을 넘어서고 또 5년 후인 1980년에는 약 170만 명에 육박하게 된다. 말하자면 1970년대 10년간 고등학생 수는 매년 1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1960년에 전체 학생 인구의 6%에 불과하던

2) 김기석, 「유상 중등 교육의 팽창」, 김신일 외, 『한국 교육의 현단계』(서울: 교육과학사, 1990), 135쪽.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4호)

고등학생이 1985년에 이르러서는 3배 이상 늘어 전체 학생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된다.³⁾

〈표 1〉 초·중등 교육인구 변동, 1955-1985⁴⁾

연도 \ 구분	초등학생 수	중학생 수	고등학생 수	계
1955	2,877,405	475,342	254,711	3,607,458
1960	3,599,627	528,614	263,944	4,392,185
1965	4,941,345	751,341	426,531	6,119,217
1970	5,749,301	1,318,808	590,382	7,658,491
1975	5,599,074	2,026,823	1,123,017	8,748,914
1980	5,658,002	2,471,997	1,696,792	9,826,791
1985	4,806,752	2,782,173	2,152,802	9,741,727

요컨대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1970년대에 급증하게 되어 1980년대 중반에는 전체 학생 인구의 45%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향 속에서도 중학생 수와 고등학생 수의 증가 시점에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성장의 절정기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성장의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인구가 1970년까지 10여 년간 성장의 절정을 이루었다는 사실과 함께 고려하면 이런 사실은 우리 나라의 교육 인구가 5년의 간격을 두고 증가한 일정한 흐름을 이해하게 한다.

그럼 중등 교육의 팽창을 초래한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⁵⁾ 첫째로 베이비붐과 같은 급속한 인구 증가 현상에 따라 증폭된 교육권 실현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자연적 인구 증가율을 넘어서는 취학 인구의 급증 현상은 교육 기회가 제한된 구조 속에서 과도한 입학 경쟁 사태를 야기한다. 둘째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당국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입시제도를 개혁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교육인구 팽창을 추동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급증하는 취학 희망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관되게 시행하는 중등 및 고등교육의 유상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 교육팽창을 초래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3) 위의 글, 같은 쪽.

4) 손인수, 『한국 교육사』 (서울: 문음사, 1987).

5) 위의 글, 139쪽.

2. 중·고교 입시제도의 변화와 교육 팽창

중·고등학교 입시제도의 변화는 중등교육 팽창의 주요한 계기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말하자면 1970년대 이후 한국 중등교육의 지각 변동을 초래한 동인의 한쪽 면은 중·고교의 입시제도 변화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입시제도 변화란 1969년에 단행된 중학교 무시험제와 1974년에 실시된 고입연합고사 추첨 배정제를 위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일컫는 것이다.⁶⁾

1969년에 중학 무시험 진학제도와 같은 입시 정책이 단행된 것은 중학교 취학 연령에 이른 베이비붐 세대들을 수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으며, 1974년에 실시된 고교평준화 정책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증가의 경향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학률 변동 추세로 보면 중학교 무시험제 실시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이 62%였으나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1971년에는 70%를 넘어서기 시작한다. 고등학교 진학률의 경우 평준화 정책 실시 당해 연도에는 42%에 머물렀으나 그 이후 1980년에 66%, 1985년에 80%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⁷⁾ 요컨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국가의 교육 팽창 정책에 의해 1960년대 전까지는 초등교육의 보편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중등교육의 보편화, 1980년대부터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루어 교육의 단계적 팽창을 반세기 만에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3. 무한 입시경쟁 교육의 보편화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평준화 정책 실시의 기본 취지는 지나친 입시 부담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보편화되는 교육 현실을 개혁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국6병’이니 ‘중3병’이니 하는 말로 축약되던 입시 과열 현상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입시제도를 개편하게 된 것이다.⁸⁾

그럼 이와 같은 취지에 근거한 정부의 입시제도 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교육 자체의 문제와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일소할 수 있었는가? 역설적이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입시제도 개선과 궤를 같이한 교

6)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3년 말 발표되어 1974년 서울, 부산 지역에서의 실시를 시발로 하여 1975년 인천, 대구, 광주, 1979년 수원, 춘천, 대전, 전주, 마산, 창원, 청주, 제주, 1980년 성남, 천안, 진주, 이리, 목포, 안동, 군산, 원주 등으로 확대된다. 심성보, 「현대 한국 중등교육 정책의 역사적 평가」,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편, 『한국 현대 교육의 재평가』 (서울 : 집문당, 1993), 295쪽.

7) 김기석, 앞의 글, 141쪽.

8) 손인수, 『한국교육사』 (서울 : 문음사, 1987), 747-748쪽.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4호)

육팽창의 여파로 입시경쟁 교육 체제는 더욱 더 심화되고 고질화된 것이다. 물론 중학교 무시험 진학으로 초등학생의 치열한 입시 경쟁이 해소되었다. 또한 고교평준화로 명문고교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경쟁에 의해 초래된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화는 상당부분 해소되는 듯했다. 그러나 더욱 치열해진 대학입시 경쟁은 고등학교를 입시준비를 위한 학습장으로 변질시켰다. 고등학교는 대학의 예비학교로서 대학 입학에 위한 준비 교육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등교육 팽창 과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팽창 규모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그것보다 크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으며 1980년 이후 급격히 신장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⁹⁾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의 극심한 입시경쟁 체제화는 자연스럽게 중학교와 초등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한 입시경쟁 체제로 고착되는 병폐를 낳게 되어 예외 없는 입시경쟁 교육 현상이 보편화되게 된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존속시키면서 사회 정책의 민주화와 함께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내실화를 위한 집요한 노력을 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 결과 모든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입시 과열화를 가져오고 말았다. 그것은 한국 교육 문제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고3병'으로 나타났다. '고3병'은 무한경쟁의 극치를 이루어 이전의 '국6병'이나 '중3병'과는 정도를 달리하는 고질병으로 굳어졌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과외공부라는 말은 초등학교 한 반의 10% 미만, 중·고등학생의 일부에만 국한되어 온 전유물이었다.¹⁰⁾ 그런데 1970년대 중후반을 거쳐 과외병은 더욱 악성화 되었다. 과외가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산층 및 그 이하의 하류층까지 일반화되었고 학교성적은 물론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의 합격률은 과외비 투자에 비례한다는 의식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팽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고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5공화국 정부는 1980년 7월 30일 대입본고사 폐지와 과외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한다. 7. 30 교육개혁으로 지칭되는 이 조치는 가정의 과외비 부담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학교안 과외' 형태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같은 기형적인 학교 수업 양상을 초래해 1980년대를 지나면서 공교육 왜곡 구조를 더욱 더 보편화하고 제도화하는 병폐를 낳았다. 중등교육은 입시 위주의 수업과 일차원적 사고를 강요하는 수업이 일상화되어 교육의 본질에서 제도 이탈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대학입시를 최고의 가치로 한 '입시문화'가 중등교육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런 풍토 속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은 지난 수십 년간 학생들을 학교 교육의 노예상태로 묶어 두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 학교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은 깨어 있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학교 수업과 학교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강화하는 과외 수업으로 소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¹¹⁾

9) 김기석, 앞의 글, 136쪽.

10) 심성보, 앞의 글, 297-298쪽.

4. 입시경쟁교육의 보편화와 학교도서관의 침체 구조

1970년대 이후 중등교육의 변화가 추동한 입시경쟁교육의 보편화는 학교도서관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입시경쟁 교육이 미친 바람처럼 몰아친 암흑의 시대에 학교도서관 운동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광풍이 몰아치는 역사의 현장을 지켜온 원로 사서교사의 증언은 이 의문에 대해 명징한 답을 제시한다. 196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서울 숙명 여중고 도서관을 지켜온 박희 사서교사의 증언이다.

문제는 '69년도 중학교 평준화, '74년도 고등학교 평준화 때부터였습니다. 열람 및 대출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3년 내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더라구요. 그 이후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사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외열풍이 불기 시작해 감히 독서관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¹²⁾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교육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며 운동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의 증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권양원은 대학 진학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명목으로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붙잡아 두는 풍토와 그 억압적인 시스템에 눌려서 쫓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은 전혀 상관없는 기관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와중에서 사서교사의 설자리도 점점 좁아졌다고 진술한다.¹³⁾

따라서 그는 입시제도가 개선되지만 하면 학교도서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그만큼 입시경쟁교육이 학교도서관 침체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는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다.

입시 위주 교육 체제하에서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암기 학습과 소위 중요 과목에 집중되는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과중한 학습량 등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시간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게 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는 경쟁의 레이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여유 있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일탈행위가 되는 것이다.¹⁴⁾

사서교사로서 참교육 운동의 선봉에 섰던 정해숙은 입시경쟁교육이 학교도서관을 황폐화하는 구조에 대해 더욱 더 본질적이며 총체적인 통찰을 보여 준다. 입시경쟁교육이 과열되면서 학생과 교사가 철저한 경쟁 시스템 속에 매몰되면서 학교는 전쟁터가 되고 더 이상 교육은 바른 인간형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그러한 풍토는 사회 전체에 복합적인 가치 왜곡 현상을 조장하여 교육이 오히려 불구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될 정도로 본체도를 이탈했다고 한다. 이처럼 교육의 본질이 훼손된 마당에 학교도서관이 온전할 수 없었

11) 김인희, 『한국 교육의 역사와 문제』(서울: 문음사, 1994), 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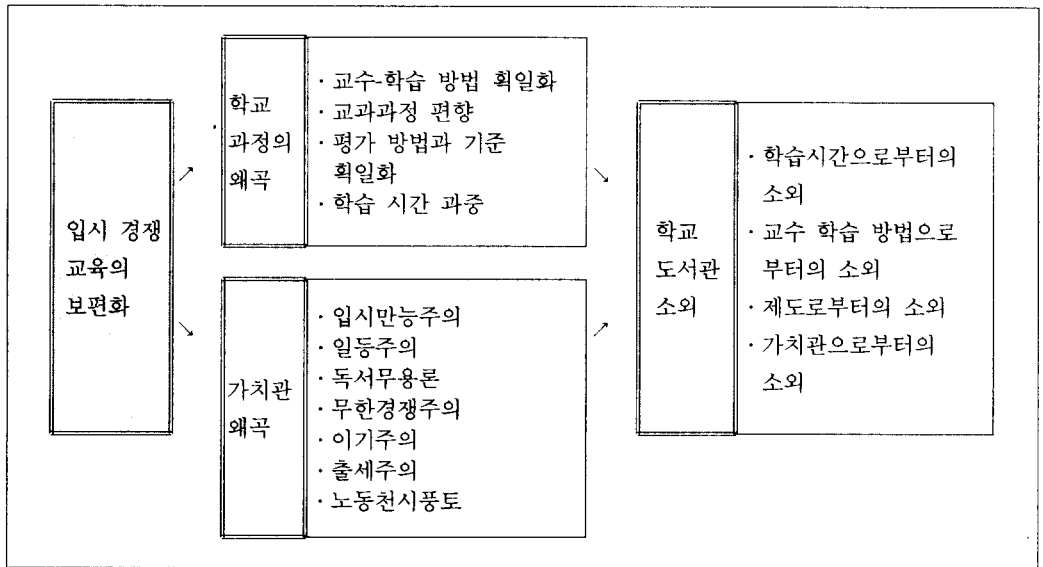
12) 도서관문화 편집실, 「교육환경개선과 학교도서관-학교도서관이 교육환경개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특집 좌담회)」, 《도서관문화》 39권 4호(1998. 7·8), 311쪽.

13) 권양원 선생과의 대담, 1999. 1. 21. 13:00-15:00, 권양원 선생 자택(대전시 효동)

14) 도서관문화 편집실, 위의 글, 같은 쪽.

으며 따라서 학교도서관 문제는 본질적으로 입시경쟁체제로 고착된 교육의 판이 바뀌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¹⁵⁾

교육이 입시 만능화 되면서 교수학습 방법, 교과과정,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학교과정 (School Process)이 입시경쟁 체제로 변하게 된 것이 직접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는 학생과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까지, 나아가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극단적인 경쟁 교육의 원리에 경도되고 몰입되어 교육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전사회적인 가치 왜곡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왜곡의 귀결로 학교도서관은 학교 과정과 사회의 가치관으로부터 소외되고 운동은 침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구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입시경쟁교육의 심화에 따른 학교도서관 소외 구도

입시경쟁교육은 학생들을 교실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며 교과서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가능한 완벽하게 암기하여 반추해내는 것이 최선의 공부라고 믿게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 학교도서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을 읽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교과서 밖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접할 필요가 없으며 접해서도 안 되는 잡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오로지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고 학교는 지식

15) 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 대담,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④정해숙 선생」, 《도서관문화》 40권 2호(1999. 3·4), 18-19쪽.

습득과 사회적으로 인증되는 학벌 획득의 수단일 뿐이다.

학생들의 몸과 정신을 획일적으로 통제하여 인스턴트 식품처럼 가공된 단편적인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교육으로 구현되는 현실에서 학교도서관은 먼 나라의 꿈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의 사명은 학생들이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며, 대학 진학이 교육의 지상과제로 천명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도서관은 개입의 여지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입시경쟁교육이 공교육을 마음껏 유린하는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질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굶주린 맹수처럼 엄습해 오는 광풍 속에서 학교도서관은 온전히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된다. 그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도서관이 지향하는 교육의 원리는 입시경쟁교육의 원리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원리는 입시경쟁교육의 원리와 철저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시경쟁교육이 승하면 승할수록 학교도서관은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 2> 입시경쟁교육과 학교도서관의 교육원리 비교

영역	구분	입시경쟁교육	학교도서관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방법	주입식, 암기식	탐구식, 토론식, 문제제기(해결)식
	평가 기준	기억력, 암기력	창의적, 자율적 사고력
	학습 도구	교과서, 단일의 참고서	다양한 자료, 매체
	교사의 역할	지도자, 리더	조언자, 조정자, 격려자
	학습의 장	고정적-교실 중심	가변적-탈교실화
	교수-학습 주도성	교사 중심	학생 중심
교육의 지향성	인간상	경쟁적, 투쟁적 인간	전인적, 조화로운 인간
	교육의 목적	상급학교 진학 → 세속적 출세	바람직한 인간 형성
	교육의 성격	지식 습득	총체적 인간 개발
	학교의 성격	학력 인증 수단	사회화의 장
	사고 체계	획일적, 규범적, 기계적	자율적, 주체적, 개성적
	인간 관계	이기적, 경쟁적	이타적, 협력적
교수 활동의 구조	교사-학생 관계	일방향적, 권위적	쌍방향적, 교호적
	의사소통 방법	명령	대화
	지식, 정보 유통 패턴	일방향적, 직선적	쌍방향적, 순환적
	학생 지도 원리	통제, 감시 → 억압	자율, 참여 → 복돋움

Ⅲ. 국가 교육 이념의 성격과 교육 왜곡

교육 인구의 팽창과 입시경쟁교육의 심화에 따라 교육의 왜곡이 심화되고 학교도서관 운동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부 당국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요컨대 국가 교육 행정을 실행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토대가 되는 국가 교육 이념은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 교육 이념의 구현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통해 국가 권력은 학교도서관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방법으로 간섭하게 되었을까? 이는 학교도서관 운동이 침체하고 쇠퇴하는 배경에 대한 심층적이며 구조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1. 발전교육론과 교육의 도구화

해방과 6.25를 겪으며 빈곤과 저개발의 경제적 조건에 민족분단이라는 정치적 조건이 혼합되어 있었으며 거기에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던 한국 사회의 지배 원리는 사회 발전 이념에 덧붙여 국가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 권력의 이데올로기는 발전교육론과 체제교육론이라는 형태로 발현되어 교육을 지배하는 중심 이론으로 기능하게 된다.¹⁶⁾

발전교육론에 따르면 교육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개발·공급하며 생산적 가치관과 기술을 창출하고, 안정된 정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치 사회화, 정치적 충원, 정치적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사회의 이념을 이해시키고 발전지향적인 근대인의 의식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¹⁷⁾ 결국 한국의 발전교육론은 효율성과 안정의 바탕 위에서 발전을 지향하는 경제 성장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생산성과 질서유지를 교육의 근본 지표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원리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증대되는 생산 인력의 수요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중등교육의 팽창 현상을 당연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발전교육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기능은 종합적인 교양인으로서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16) 정환규는 한국 교육이론의 성격을 사회발전의 지배적 경향과 통치체제 수용성에 따라 발전교육론, 체제교육론, 인간교육론, 민중교육론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는 이 중 발전교육론과 체제교육론이 한국 사회의 지배적 교육이론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인간교육론과 민중교육론은 주변부 이론의 입장에 있다고 분석한다. 정환규, 「70년대 유신이념을 중심으로 본 한국 교육이념의 정치적 성격」, 이규환·강순원 편,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0), 435쪽.

17) 정환규, 위의 글, 437쪽.

현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을 양산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독립된 개체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개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공된 기능 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적인 노동 인력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격화된 지식을 주입하는 것으로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교육은 국가 경제 발전의 도구로 전락하고 학생은 국가 경제의 부속품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은 피교육자와 그 가족에게는 세속적 출세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이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교육은 사적 차원에서 도구화되는 것이다.¹⁸⁾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풍토에 의해 시험 위주의 교육이 지배적인 수밖에 없으며, 그 시험이 인간의 극히 한정된 자질과 능력만을 평가하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 시험 위주의 교육은 인간의 총체적인 가능성을 개발하기보다는 한정된 능력만을 개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풍토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력과 통합적인 인성을 개발하는 교육, 인간 내면의 정서와 감성을 개발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삶을 개척하게 하는 교육적 기제는 필요치도 않으며 금기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도서관과 같은 인간 그 자체의 의미를 고양하고 개발하는 교육적 기제는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황을 지향하기 때문에 교육이 도구화되는 조건에서는 입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3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교육과정기는 학문중심 교육과정기이다.¹⁹⁾ 이때부터는 그 이전의 생활중심 교육과정기와 차별적인 교육 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학문중심 교육과정기인 1973년경부터 우리 교육은 더욱 더 지식 교육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교육 팽창과 중·고교 입시제도 변화를 추동 요인으로 삼고 국가 경제 건설에 복무한다는 대의명분을 견인 요인으로 삼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생활중심 교육과정기였던 1960년대에 학교도서관 운동이 전성기를 이루다가 학문중심 교육과정기로 접어드는 1970년대 초부터 크게 침체하는 사실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체제 교육론과 집단의식화

발전교육론과 함께 한국 사회의 교육을 지배한 이론적 원리는 통치체제를 정당화하는 교육

18) 정원식, 「교육발전의 시각」, 진덕규 외, 『한국 사회의 발전논리』(서울: 홍사단출판부, 1984), 162쪽.

19) 정환규, 「70년대 유신이념을 중심으로 본 한국 교육이념의 정치적 성격」, 이규환·강순원 편,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0), 435쪽.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이념인 체제교육론이다. 체제교육론은 집단의식화의 교육 전략을 근간으로 한다. 집단의식화 교육이란 민중의 지적·이념적 결핍 상황을 전제로 하여 특정 집단이 그 결핍 내용을 자신들의 이념으로 채우려는 이념적 제도화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교육이라기 보다는 훈련에 가까운 교화 방식이다.²⁰⁾ 한국의 체제교육론에 있어 집단의식화의 내용은 통치체제의 정치 이념으로서 통치 이념은 집단의식화를 통하여 '그럴듯한 지식'으로 가공되며 객관적 현실관으로 제시된다.²¹⁾

우리 나라의 교육사에서 체제교육론에 입각하여 집단의식화의 수단으로 이용된 구호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국적 있는 교육', '국민윤리교육', '새마을 교육'과 같은 국가주의적 교육 목표가 강력히 추진되고,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원리의 영향을 받았던 '새 교육' 또는 '시민형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에 대해서 국가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²²⁾

1950년대 이후 강조되던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사조가 '새교육' 운동으로 표출되면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제3공화국 정권이 수립되는 1960년대 초부터 이미 학교도서관과 같은 민주적인 교육 기제의 토대를 위협하는 기운이 싹트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이념이 구체화되고 본격화되는 것이 바로 1968년에 공표된 국민교육헌장이다.

국민교육헌장은 1970년대 한국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을 제시하여 문교정책의 수립과 교육과정의 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교육헌장은 국가주의, 전체주의, 반공이데올로기, 경제지상주의를 그 골간으로 하여²³⁾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새마을 운동과 함께 국민 교화의 핵심 이념으로 활용된다. 이 교육 방침에서 가장 부각되는 이념은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주입시키기 위한 국가주의 원리로서 과학기술 교육과 체육 교육의 진흥과 더불어 집단의식화 교육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정책의 방향은 1981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 정권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어느 의미에서는 국민 정신 교육과 반공 사상에 기초한 안보 교육이 종전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지만 국가 권력의 성격은 그대로이며 따라서 교육 이념의 왜곡 현상 또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주의 교육 이념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방침으로 구체화된다.

한편 이러한 국가 권력의 교육 이념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국가에서 기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20) 한준상, 「제3세계 민중교육론의 한국적 수용 上 下」, 《속대신보》 1981. 9. 17, 24.

21) 정환규, 앞의 글, 438쪽.

22) 이규환, 『한국 교육의 비판적 이해』(서울: 한울, 1993), 185쪽.

23) 이승환, 「철학의 식민화: 황색 피부 하얀 가면」, 《역사비평》 46(1999 봄), 274쪽.

까지 초등학교 사회, 국어, 도덕 교과서에 포함된 학습 주제의 분포 변화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반공주의와 국가주의 및 애국심을 주제로 하는 내용은 1957년의 교과서에 비해 1974년의 교과서에 10% 이상 강화되었다. 반면 개인적 책임 및 독립, 개인적 발달(창조성), 적극적인 사회 관계의 발전 등의 주제는 축소되거나 조금 확대되었다. 요컨대 개인의 자율과 독립을 강조하고 다양한 사회 관계에 관한 이해를 도우는 주제는 억압되고 반공의식과 국가의식을 고양하는 주제는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의 교육 이념이 국민 개개인의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의식과 생활을 제한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면서 반대로 투철한 국가관으로 통합하여 의식을 단순화하고 획일화하려 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표 3> 초등학교 사회, 국어, 도덕 교과서에 포함된 학습 주제의 분포²⁴⁾

주제 \ 연도	1957	1965	1974
경제적 성장	21.0 %	21.0 %	19.7 %
개인적 책임 및 독립	17.0 %	13.2 %	13.2 %
개인적 발달(창조성)	17.7 %	17.4 %	22.9 %
사회적 협조	9.5 %	10.6 %	7.2 %
사회의 법과 규정에 순응	5.5 %	7.3 %	5.4 %
적극적 사회 관계의 발전	21.7 %	26.0 %	15.8 %
반공주의	9.8 %	14.5 %	21.5 %
국가주의 및 애국심	19.1 %	16.6 %	29.3 %

이것은 근원적으로 분단이라는 상황이 만들어 내는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왜곡의 한 측면이며, 정당성이 결여된 국가 권력의 국민에 대한 집단적 의식화 교육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²⁵⁾

결과적으로 우리의 학교 교육은 민중들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창조적으로 상상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획일적으로 사고하고 단세포적으로 판단하며 피동적으로 행동하는 생활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일에 성공한 셈이다. 이러한 교육적 성과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삶의 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되도록 죽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을 되도록 늘여 가는 과정에서 더욱 확실해져갔다.²⁶⁾

24) R. H. Cole, "The Koreanization of Elementary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1948-1974."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1973, 이규환, 앞의 책, 189쪽에서 재인용(여러 주제가 둘 이상의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 합계가 100%를 초과하고 있음).

25) 한수영, 「분단과 전쟁이 낳은 비극적 역사의 아들들-이문구, 김원일, 이문열, 김성동을 통해 본 '좌익' 2세의 삶과 의식」, 《역사비평》 46(1999 봄), 17쪽.

26) 김인회, 앞의 책, 87쪽.

3. 국가 권력의 미필적 고의, 학교도서관 말살

한국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절정에 올랐던 1960년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을 억압하거나 제한한 증거는 없다. 그러면 1970년대 이후 학교도서관 운동이 극도로 침체하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무죄인가? 표피적으로 보면 학교도서관 운동 침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가 걸어온 길 위에서 국가 권력이 갖는 특이한 성격과 그 유지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이면의 심층적인 경로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학교도서관과 같이 국가 권력의 위치에서 볼 때 지엽말단적인 영역에까지 강력하고 교묘한 폭압의 논리가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5. 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과 그 뒤를 잇는 신군부 정권의 존립 기반은 급속한 경제 개발과 반공 이념에 의한 국민 의식 통합에 있었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지향 속에서 교육은 획일적이며 체제 순응적인 산업노동력을 생산하는 도구로 전략하게 된다. 말하자면 정부는 교육의 과정에서 국가 권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들이 기획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국민이 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을 주도해 나간 것이다. 한편 국가 권력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국민들의 교육열을 방조하여 정부의 교육 정책과 상승 관계 속에서 교육 왜곡 현상을 구조화하고 심화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인간 본연의 내면적 감성과 자신의 개성에 대해서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제시된 소수의 길을 통해서 편향되고 관성화된 기준에 의해 가치가 설정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무한 경쟁을 펼치도록 강요받았다. 이것이 교육이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육적 기제가 지향하는 원리는 이러한 왜곡된 교육 원리와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개개인의 성향과 지향에 따라 자유로이 외부의 세계와 접촉하고 자율적이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표출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것이 학교도서관의 기능이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지향하는 교육 이념과는 완전히 대립적인 원리인 것이다.

이런 원리적 대립 관계를 상정한다면 학교도서관 운동의 침체에 대한 국가 권력의 역할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국가 권력은 학교도서관이라는 극히 교육적인 교육 기체에 대해서는 무지했으며 무관심했다. 따라서 어떤 부정적인 의도를 가질 수도 없는 입장에 있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의 이념은 철저하게 학교도서관의 이념과 상치되는 것이었으며 그 통치 이념은 강력하게 교육 정책에 반영되었다. 철저히 반학교도서관적인 교육 이념이 교육의 전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던 학교도서관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점점 소외되어 퇴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국가 권력은 명시적으로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학교도서관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IV. 왜곡된 교육의 반학교도서관적 성격

1. 자율적 사유의 감금

국가 권력은 정권의 안위와 재생산을 위하여 왜곡된 이념으로 교육을 장악하면서 철저하게 그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통제하고 억압했다. 권력이 지도하고 원하는 방법과 내용을 벗어나서 사유를 하게 되면, 즉 권력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게 되면 정부는 철저하게 억압하고 그것의 사회적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하고 감금하는 정책을 펴 왔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증거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가령 김지하와 같은 사상가를 감금하여 정권에 대한 비판을 차단한 것은 자율적 사유를 감금함으로써 권력의 안위를 보전하고 왜곡된 사회구조를 유지하고자 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율적 사유를 원천적으로 감금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 왜곡된 우리 교육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학교도서관과 같은 자율적 사유의 해방을 지향하는 교육 기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왜소화하게 된다. 자율적 사유의 감금은 프레이리(Paulo Freire)가 제시한 ‘침묵의 문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실현되며 그것은 곧 은행저금식 교육의 완벽한 고착화를 의미한다. 또한 우리 교육에서는 자율적 사유를 차단하고 의식을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교과서 제도라는 실제적인 시스템을 철저하게 가동해 왔다.

1) 침묵의 문화

1980년대 중반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열기를 반영하면서 왜곡된 교육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민중교육』 사건과 ‘교육민주화 선언’을 들 수 있다. 『민중교육』 사건은 1985년 5월 교육 문제를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제기한 부정기간행물 『민중교육』에 대해 정부당국이 관련자들을 연행 조사하여 징계 의뢰함으로써 만들어진 사건이다. 정부는 언론을 동원한 대대적인 이념 공세를 통하여 관련 교사들을 체제를 부정하는 급진좌경주의로 몰아가 관련 교사 중 일부를 구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부분의 교사를 파면하였으며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도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²⁷⁾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교육의 영역에서 자율적 사유와 비판의 움직임이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 권력의 반교육적인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민중교육』 첫 호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단지 교육이 인간을 기르는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를

27) 교육출판기획 편, 『분단시대의 학교 교육』(서울: 푸른나무, 1989), 471쪽.

제기 했을 뿐이다. 교육 영역과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교육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인간에 대한 비틀어진 생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다.²⁸⁾

『민중교육』 사건과 함께 1980년대 교사 운동의 큰 획을 그은 ‘교육민주화 선언’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조명할 수 있다. 1986년 5월 10일 YMCA 중등교육자 협의회 산하의 서울, 부산, 광주, 춘천 지방회에 소속된 교사 810여 명은 현행 교육제도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그 동안 자율성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말단 관료로 역사 속의 방관자로 위치했던 자신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육민주화를 위해 참교사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민주화 선언’을 발표한다.²⁹⁾

『민중교육』 사건과 ‘교육민주화 선언’ 사건은 국가 권력이 얼마나 철저히 자율적 사유를 감금하고 침묵의 문화를 고착시키려고 노력했는지 알게 해 준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의 사유를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이념을 교육정책과 현장에 관철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자신들의 기획 속에 두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침묵의 문화가 철저히 구축된 구조 속에서 학교도서관과 같은 교육적 기제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원천적으로 침묵이 강요당하는 구조 속에서 자율적 사유를 고무하고 격려하는 교육적 기제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기제는 다분히 위험하고 불온한 성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은행저금식 교육과 문제제기식 교육

자율적 사유를 감금하는 국가 권력의 불순한 이념과 그 결과로 구축된 침묵의 문화는 프레이리가 통찰력 있게 제시한 은행저금식 교육을 몸통으로 하는 나무의 뿌리와 열매이다. 국가 권력의 모순된 교육 이념이 교실에서 교과서를 매개로 하여 교사에 의해 일상의 지식으로 전환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교육 통제는 원칙적으로 교사와 학생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국가 권력의 교육 통제가 실현되는 것은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적 사유를 감금하고 침묵의 문화를 조장하는 방편으로서 교수-학습의 방법을 왜곡하여 관행화 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수월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그 본질적 사명으로 한다고 할 때 교수-학습 방법의 왜곡은 학교도서관의 존립에 치명적이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을 지배해온 교수-학습 방법인 은행저금식 교육은 원천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생존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양이었던 것이다.

28) 민중교육 편집위원회, 『민중교육』(서울 : 실천문화사, 1985), 2-3쪽.

29) 교육출판기획 편, 앞의 책, 472-476쪽.

은행저금식 교육에서 교육은 학생들이 예탁소가 되고 교사가 예탁자가 되는 예탁행위이며, 의사소통 대신에 교사가 여러 가지 코뮤니케를 발표하고 '예탁금을 만들면' 학생들은 참을성 있게 받아들여 기억하고 반복한다.³⁰⁾ 결국 이 부당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 인간은 창의력도 없고 변혁의지도 없는 사람으로 정돈되어 버린다.

은행저금식 교육은 특히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왜곡하고 일방화하여 편협되고 경직된 지식 습득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³¹⁾

반면에 문제제기식 교육은 일방적 전달을 지양하고 의사소통을 실현하여 정보의 전달이 아닌 인식 행위를 지향한다. 따라서 문제제기식 교육을 실시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사와 학생의 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 교사는 더 이상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도 배우는 자가 되며 학생들도 그들대로 배우는 가운데 가르치는 자들이 된다. 이로써 그들은 연결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책임을 진다.³²⁾ 또한 문제제기식 교육은 '되어가는(becoming)' 과정에 놓여 있는 존재, 미완성된 현실과 더불어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존재하는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긍정한다.³³⁾ 이것이야말로 바로 학교도서관이 지향하는 교육의 원리인 것이다.

문제제기식 교육의 성격은 학교도서관이 지향하는 교육의 원리와 동일한 것이다. 반면 은행저금식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왜곡하고 억압하여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사유를 차단하는 국가 권력의 교육적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국가 권력은 은행저금식 교육이 지배하는 환경과 구조를 조성하여 해방적이며 유연한 의식을 가진 인간이 자라날 수 없는 교육을 지향해 온 것이다.

은행저금식 교육이 지배하는 한 교사는 학생들의 머리에 통제되고 가공된 단편적인 지식들을 넣기만 할 것이고 학생들은 그 지식을 가능한한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해 할 것이다. 거기에 학교도서관과 같은 자율과 해방의 교육 기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3) 교과서 제도를 통한 의식 통제

자율적 사유를 감금하려고 하는 국가 권력의 이념은 교과서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국가는 학생들의 의식을 통제하여 획일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구체적인 기제로서 교과서 제도를 가동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³⁴⁾을 통해 확

30) Paulo Freire·성찬성 역, 『페다고자·민중교육론』 (광주: 도서출판 광주, 1986), 58쪽.

31) 위의 책, 59쪽.

32) 위의 책, 67쪽.

33) 위의 책, 71쪽.

34)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정: 1977. 8. 22 대통령령 제8660호, 최종개정: 1998. 12. 31 대통령령 제

연히 드러난다.

이 규정은 초중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로서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가감 없이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교과용 도서를 철저하게 자신들의 통제권 속에 두어 그 내용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 규정 2조에 의하면 교과서와 지도서의 종류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1종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로, 2종은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정 3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1종 도서를 사용해야 하고 1종 도서가 없을 경우에 2종 도서를 선정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과서와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할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이 인정도서의 사용을 학기 시작 6개월 전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가능하며, 인정도서는 교과서나 지도서를 보충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는 없게 한다.

요컨대 수업에서는 정부에서 검증한 교과서만을 사용해야 하며 교과서 이외의 도서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고 검열하여 철저하게 학습 내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의 보칙 51조에서는 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를 수업 중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도서를 선정하여 수업 중에 활용하는 것이 법규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검열하고 통제하여 사용을 의무화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는 도서가 교수 학습 과정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여 학습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³⁵⁾

교과용 도서와 정부의 인정을 거친 도서만 수업중 사용이 허용되는 구조 속에서 학교도서관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다양한 자료를 교수 학습 과정에 지원하여 학습 내용을 다양화하고 나아가 의식을 유연하게 개발하도록 하는 교육 기제가 바로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이다. 학습 내용을 검열하고 통제하여 의식을 통제하는 교육 구조 속에서 학교도서관은 개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죽음의 교육

우리의 교육이 그 동안 노정해 온 성격은 삶의 교육이 아니라 죽음의 교육이었다. 생명력을

16040호.

35)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도 이와 같은 교과서 제도가 결국 반민족적, 반민주적, 비인간적 교육을 조장해 왔다고 지적하고 그 극복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전교조,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참교육」, 한국교육연구소 편, 『참교육 그 이해와 오해』(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3), 223-227쪽

고양하고 보장하는 교육이 아니라 생명을 억압하고 죽음으로 내 모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 죽음의 교육은 무차별적인 경쟁교육 풍토에 기인한 것으로서 인간으로서 개인의 내면과 생활을 피폐하게 하며 나아가 공동체 사회의 존립과 질서를 위협하고 부정하게 된다.

1) 경쟁교육과 죽음의 교육

경쟁교육 풍토에서 학생들은 오로지 동료를 누르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다는 원리를 체득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은 경쟁자이며 적일 뿐이다. 거기에서 어떤 조화와 협력의 미덕이 자라날 수 없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인류의 공동 운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생겨날 수 없다. 이러한 경쟁교육은 교육의 본질인 '사람을 기르는 일'에서 일찌감치 이탈해 있으며 파괴적이며 이기적인 괴물을 기르는 과정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학교가 어떠한 대중을 창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 닐 포스터먼(Neil Postman)의 통찰은 무한경쟁교육 구조의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기한다.³⁶⁾

경쟁교육의 긴장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몇 년간 성적의 압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숫자는 해마다 1백여 명에 이르고 있다. 신문에 보도된 숫자만 해도 1985년 113명, 1986년 117명, 1987년과 1988년에 각각 100여 명, 1987년에는 7월까지 50여 명에 이르고 있다.³⁷⁾

2)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교육

이와 같은 죽음의 교육 풍토는 국가 권력과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빚어내는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거대 자본의 위력에 압도당한 사회에 자본의 경쟁 논리가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게 되고 교육 영역에도 예외 없이 무한경쟁의 논리가 관철되는 것이다.³⁸⁾

거대 자본과 제휴한 권력을 통해 경제 논리가 교육 현장에 그대로 투여되고 그러한 조류 속에서 오로지 일등만을 지상의 목표로 하여 경쟁하는 일등주의 풍토가 조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풍토 속에서 일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교육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3) 죽음의 교육과 참교육 운동

36) Neil Postman·차동춘 역, 『교육의 종말』(서울: 문예출판사, 1999), 38쪽.

37) 전교조, 앞의 글, 205쪽.

38) 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대담, 학교도서관 운동기를 찾아서-④정혜숙 선생」, 《도서관문화》 40권 2호(1999. 3·4), 22쪽.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20세기 말 우리 나라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전 교조의 참교육 운동의 배경이 되어 표출된다. 전교조는 입시교육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억압하고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해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교육이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배우는 일에 도움을 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³⁹⁾ 이렇게 천명된 참교육은 개개인의 정신과 육체에 깃들어 있는 생명력을 창조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며 소수의 능력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이다. 또한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 가기 위한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이다. 요컨대 참교육은 죽음의 교육을 극복하고 삶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각성이며 투쟁인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인간 개개인의 내면을 개척하게 하여 다양한 미덕을 쌓게 하고 나아가 공동체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준다.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품을 소중히 하며 전도된 가치와 경쟁의 논리를 극복하는 영혼의 눈을 열어 주는 교육은 바로 학교도서관과 같은 인간화된 교육 기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죽음의 교육 구조 속에서 학교도서관은 생존할 수가 없다. 참교육과 같은 삶의 교육 구조 속에서 학교도서관은 제 몫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죽음의 교육을 극복하고 삶의 교육을 실천하는 대안 교육의 장으로서 대표적인 거창고등학교와 풀무원기술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 원리의 하나로 독서교육이 강조되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원리의 증거를 제시한다.⁴⁰⁾

3. 식민화 교육

학교도서관을 말살하는 교육의 또 다른 속성은 식민화 교육이다. 학생을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집단주의의 상태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식민화 교육이다. 스스로의 가치 기준과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관습화된 방법과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하는 교육은 식민화 교육이다. 그 식민화 교육의 구조 속에서 학생은 식민지 백성이 된다. 주권을 빼앗기고 외부의 거대한 힘에 의존하게 되는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을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그 품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해방의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구조화된 외부의 권위와 집단주의의 상태에서 인간을 해방하여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자기 언어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해방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39) 한국교육연구소 편, 앞의 책, 199-203쪽.

40) 김정환, 『전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 내일을 여는 책, 1997), 65·72쪽.

해방 교육을 통해서만이 닫힌 교실의 문을 열 수 있으며 폐쇄적인 교사-학생의 관계를 허물 수 있고 교과서에 갇힌 파편화된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해방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의 경험과 생각이 학습자의 언어를 통해 표출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인류의 지적 유산에 접근하게 되어 자기 인생에 스스로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1) 신화 교육과 의식화 교육

식민화 교육의 한 가지 모습은 신화 교육이다. 사실과 실제에서 괴리된 언어와 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축되고 전승되는 신화 체계를 학습하는 신화 교육과 다름 아닌 것이다. 박제화된 언어와 가공된 신념이 강요되는 신화 교육은 학습자에게 자신의 언어로 사고하는 방법에서 멀어지게 하고 인위적인 거대한 의식의 구조 속에 침윤 당하게 한다. 신화 교육의 허구를 벗겨내고 스스로 사고하게 하는 교육은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프레이리가 가르쳐 주듯이 의식화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는 주어진 세계로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세계로 인식하도록 조장하는 일이다. 따라서 의식화는 세계를 반드시 비판적 성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세계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내부에 숨겨진 것들을 지속적으로 명료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⁴¹⁾

자신이 속한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여 비판적으로 개선하려는 역사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의식화 교육인 것이다. 이것은 프레이리가 제기한 세 가지 문맹 유형중 정치적 문맹 (political illiteracy)을 극복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삶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존재하게 하는 교육인 것이다.

김정환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래의 인간, 자기를 찾게 하는 '일깨움'의 교육으로서 각성적 교육의 모형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각성 교육의 의미는 첫째, 비본래적 상태에서 본래적인 자기의 상태로 회귀하는 자기 회복. 둘째, 남과 다른 자기의 고유한 삶의 길을 개척하고 그 의의를 음미하는 주체성 정립. 셋째, 나를 지배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영혼으로서 인격성에 눈뜨는 일. 넷째, 자신의 삶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겨 삶의 주인이 되는 최선의 자기 실현의 길 등이다.⁴²⁾

결국 탈신화 교육으로서 의식화 교육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41) Paulo Freire: 한준상 역, 『교육과 정치의식-문화, 권력 그리고 해방』 (서울: 학민사, 1986), 149쪽.

42) 김정환, 『인간화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5), 130쪽.

2) 주입식 교육과 대화의 교육

식민화 교육은 주입식 교육에 의해 지속되고 재생산된다. 주입식 교육은 일방적이며 명령적인 교육으로 권위주의의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보의 흐름이 고정적이며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명령을 즐기며 대화를 거부하는 사회에서는 침묵이 흥미하기 마련이듯이 주입식 교육이 지배하는 교육에서는 비판적인 의식과 자율적인 언어가 자라날 수 없게 된다. 주입식 교육은 반 대화(反對話) 교육의 다른 이름이다. 반 대화의 원리는 사람들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내포한다. 이것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이것은 무비판적이며, 비판적 태도를 생성시킬 수 없다. 또한 이것은 자기 충족적이고 절망적이며 교만한 것이다.⁴³⁾

대화의 교육은 문제제기식 교육의 주요한 조건이며 의식화 교육의 방법이다. 주입식 교육은 지식을 소유하는 학습에 지나지 않지만 대화의 교육은 지식을 활용하고 성장시키는 학습이며 현실 인식 학습의 길인 것이다. 또한 주입식 교육은 생계를 위한 교육이지만 대화의 교육은 삶을 위한 교육의 길이다. 궁극적으로 교육이 자신의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때 주입식 교육은 길을 강요하는 교육이며 대화의 교육은 길을 찾게 하는 교육이다. 삶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길을 추구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인 것이다.⁴⁴⁾

신화 교육과 주입식 교육이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는 학교도서관은 차단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식화 교육과 대화의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게 된다. 학교도서관의 원리는 대화의 원리이며 끊임없이 내면으로부터 각성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학습자를 의식적 식민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서 해방시키는 교육 구조에서 학교도서관은 핵심적 기제인 것이다.

V. 교육 왜곡의 귀결로서 학교도서관 기능 왜곡과 사서교사직의 소외

교육의 총체적이며 심층적인 파행 현상은 근본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존립 근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국가 권력의 이념에 의해 왜곡된 교육 이념의 구조 속에 학교도서관이 그 본질적 기능을 유지한 채 살아 남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교육 왜곡의 당연한 귀결로서 학교도서관은 그 기능이 왜곡되고 교육 현장에서 소외당하게 된다. 학교도서관의 소외는 구체적으로

43) Paulo Freire·채광석, 『교육과 의식화』(서울: 중원문화, 1985), 68-69쪽.

44) '길을 찾게 하는 교육'의 개념은 다음 글에 의지하였다. 김진경, 「길 없는 사회의 길 없는 교육 -<교육개혁 5개년 계획>을 보고」, 《녹색평론》 47호(1999. 7·8), 52-61쪽.

학교도서관의 운영 주체인 사서교사직에 대한 학교 사회 전반의 기피와 무관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 학교도서관 운동의 맥락에서 강습회나 연수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교육행정 당국과 도서관계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제도적 조건이 여전히 열악하고 초기 운동의 주도세력들이 다수 현장을 떠난 상황 속에서 교육 왜곡의 도저한 풍랑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다.⁴⁵⁾

1. 학교도서관의 독서실화

교육 지원 기제로서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입시 위주 교육 풍토의 심화라 할 수 있다. 물론 1970년대 이전, 학교도서관 운동이 비교적 왕성하던 시기에도 입시 경쟁은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팽창하는 교육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단행된 1960년대 말의 중학교 무시험제와 1970년대 초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입시경쟁교육의 본격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 전면화된 입시교육의 분위기 속에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책을 읽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점점 학교도서관의 순수한 이용자가 감소하게 되고 급기야 학교도서관의 본원적 기능은 정지하게 된다. 학교도서관이 학습자원센터와 독서활동의 장으로서 학생들을 유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대신 학교도서관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자습실의 기능이다.

입시공부를 위한 자습 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열람실이 전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밤늦은 시간에도 학교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심지어 방학 때도 학교도서관은 만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두꺼운 참고서와 교과서를 앞에 두고 입시공부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요컨대 학교도서관의 주요한 기능과 원리가 '자료'에서 '공간'으로 전환되어 버린 것이다. 자료 중심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기능이 공간 개념의 서비스 기능으로 전환된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더 이상 열린 세계로의 여행을 하고 사색에 잠길 수 있는 해방의 공간이 아니라 치열한 자리 잡기 경쟁만 남은 독서실이 된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독서실 기능으로 왜곡되면서 자료는 가급적 최소한의 공간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자료는 조그만 서고에 조밀하게 쌓여 자물쇠로 꼭꼭 잠겨 관리되는 상황으로 변한다. 도서관이 책 창고로 변한 것이다. 자료에 대한 개념이 서비스의 원천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45) 1970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의 내적 지형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정리한 바 있다. 김종성, 「1970년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지형 변화」, 《도서관》 54권 1호(1999 봄), 41-63쪽.

입시 경쟁 과열로부터 학교도서관이 입시준비용 독서실로 변하고 서고는 먼지와 거미줄이 뒤덮은 채 잠겨 있는 현실을 현장 사서교사들은 사실적으로 고발한다.⁴⁶⁾ 그들은 이미 학교에는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부방만 존재한다고 통탄한다. 도서관의 기능이 완전히 독서실로 전락하면서 그 근본 이념마저 퇴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른 증언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입시경쟁의 최전방이 되었으며, 소수의 선발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불평등한 공간이 되기도 한 것이다.

2. 독서지도에 대한 편향적 강조

학교도서관이 학습자원센터로서 기능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서 한편으로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독서지도가 강조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제도적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입시경쟁교육의 과열로 인한 학교도서관 기능 왜곡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운동 그룹의 교육지책에 의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제도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학교도서관이 그 본질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성이 유연한 독서기능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측면은 마을문고 운동과 같이 국가 근대화의 차원에서 독서를 강조하는 분위기와 어울려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에서 볼 때 그것이 단순한 독서시설로 활용된다면 그 존립의 필요불가결성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그 후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독서실 개념과 함께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해 주는 독서지원 기능으로 협약화된 사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가 크게 위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 기능에 수반되는 독서기능을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포괄적이고 애매하기까지 한 독서 영역에 학교도서관의 구체적이며 고유한 기능이 매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기에 생산된 독서지도에 관한 학교도서관계의 담론이 모두 학교도서관의 본원적 기능과 괴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많은 사서교사들의 담론은 학교도서관의 자료센터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학교도서관을 정점으로 하는 독서지도를 강조했다.⁴⁷⁾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46) 김동철, 「미래의 학교도서관」, 《도서관문화》 29권 6호(1988. 11·12), 35쪽; 도서관문화 편집실, 앞의 글, 25쪽.

47) 1970년대 말까지 생산된 독서지도 관련 담론들은 대체로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원리에 튼튼히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담론들이다. 이정희, 「학교도서관 기능의 전환기」, 《도협월보》 19권 10호(1978. 12), 6-10쪽; 박용두, 「독서지도 4년간을 회고하면서 -실효 거들 고교 독서지도 방안은 없을까?」, 《도협월보》 20권 1호(1979. 1), 9-12쪽; 조재후, 「독서지도 계획」, 《도협월보》 20권 6호(1979. 7·8), 19-21쪽.

대한 소외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이러한 원리에 대한 이해가 얕은 사람들이나 타 분야의 사람들이 이런 담론 생산에 가세하면서 독서지도에 관한 담론은 도서관의 원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 당시 학교도서관 현장에 몸을 담고 있던 이정희의 글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후반기부터 노정 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학교도서관의 기능이 자료의 운영 관리 면보다 독서지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1975년에서부터 1978년까지 도협월보에 기고된 학교도서관 관련 논문 총 30편 중 독서지도문을 취급한 것이 15편으로 그 반을 차지한다고 한다.⁴⁸⁾

그런데 그는 이러한 독서지도와 관련한 논의들이 단순히 '읽기 지도'나 '문학 교육'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도서관 기능을 왜곡시키게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협한 독서지도 개념을 극복하고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독서지도의 강조는 불가피한 시대적 조류라는 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도서관 기능을 왜곡하고 왜소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향은 궁극적으로 사서교사들을 독서 교육 영역에서 타 교과담당 교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제도가 왜곡되어 있을 때, 어떤 한 기능이 부각됨으로써 다른 본질적인 기능이 질식되어 버리는 원리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3. 국가 이념의 선전 도구화

국가 근대화를 지상의 목표로 삼고 국민 동원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 영역에도 거침없이 국가 시책의 홍보와 실천을 강요한다. 가령 새마을 운동이 국가 경제 건설과 조국 근대화의 절대적 길로 강조되는 시기에 그것은 어김없이 교육 영역에도 관철되었다. 그것이 바로 새마을 교육이다. 이 새마을 교육과 같은 국민 동원적인 정부 주도 운동은 학교도서관에도 예외 없이 침투하여 수단화하고 그 기능을 왜곡하게 된다. 학교도서관이 새마을 운동의 도구로서 전용되는 것이다. 엄혹한 국가 권력의 주도로 진행된 이런 운동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는지 일선 학교의 사서교사도 학교도서관을 통해 새마을 운동에 봉사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⁴⁹⁾

물론 이러한 담론은 학교도서관계에서만 생산된 것도 아니며, 그 시절에 이 정도를 무슨 큰 잘못이라고 단죄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이념이 왜소화되고 왜곡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경향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그 내용이 도서관의

48) 이정희, 앞의 글.

49) 최태정, 「새마을 교육과 학교도서관」, 《도협월보》 14권 11호(1973. 11), 16-19쪽.

본질적인 원리를 압살하는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찰적 입장 없이 부하노동하는 것은 도서관인이 오히려 도서관 죽이기에 앞장서는 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 근대화를 위한 지식의 축적과 투철한 국가관 확립에 기여하자는 것은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몇 번이나 언급한 얘기지만, 일방적 지식 주입 교육과 경직되고 획일적인 이념 편향성은 도서관의 원리와 극단적으로 상치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성찰 없음과 무지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엄혹한 국가 권력의 강요에 의하여 학교도서관은 기능이 왜곡되고 변질되기도 한 것이다.

4. 사서교사직의 소외

학교도서관이 소외되고 그 기능이 왜곡되는 것은 사서교사직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희박해지고 그 일을 기피하는 현상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사서교사직에 대한 제도적 확립과 개선에 대해 도서관계에서는 1960년대 이후 끊임없이 관계 당국에 건의해 왔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우선 사서교사직에 대한 제도적 불합리의 문제 때문에 사서교사들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점점 학교도서관 담당을 기피하게 된다.⁵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교사가 사서교사직을 맡으려고 하겠는가? 누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려고 하겠는가? 학교도서관이 교사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되고, 학교 경영자에게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공은 없고 책임은 많은 곳이며 자칫 잘못하면 욕만 먹을 수도 있는 것이 학교도서관 담당인 것이다.

일선 교사들에게 있어 청소 담당보다도 더 기피하는 것이 도서관 담당이라고 한다.⁵¹⁾ 한편이 지경으로 사서교사직에 대한 인식이 열악하게 된 것은 교육행정 당국과 학교 경영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과 사서교사의 기능과 역할에 이해가 없는 교육 주도 세력들의 비협조와 부당한 간섭이 오히려 사서교사직에 대한 기피와 무관심을 조장했다는 것이다.⁵²⁾ 이러한 왜곡 현상은 1990년대까지도 계속된다.

이처럼 제도적인 유인 요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처우와 관리 책임면에서 이로운 점이 전혀 없는 사서교사직은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독서실과 책 창고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50) 이정희, 앞의 글, 쪽.

51) 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 대담,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②박태신 선생」, 《도서관문화》 39권 5호(1998. 9. 10), 29-30쪽.

52) 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 대담,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④정해숙 선생」, 《도서관문화》 40권 2호(1999. 3. 4), 19-20쪽; 이덕주, 「주변에서 중심으로 전진하는 학교도서관」, 《도서관》 52권 4호(1997년 겨울), 76-77쪽.

것은 자습 감독을 하는 독서실장 역할과 책 창고지기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마당에 어느 누가 스스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려 하겠는가.

학교도서관이 태동하고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도서관 담당교사로 선발되어 강습에 참여하고 학교도서관을 운영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앞선 엘리트 교사들의 몫이었으며 학교 내에서 교장과 교사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사서교사직과 학교도서관이 얼마나 소외되고 왜소화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VI. 나오며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가 경제 건설의 국민적 열기가 높아지고 이를 배경으로 한 교육 열 또한 극단적으로 팽창하게 된다. 분단 체제 아래에서 정통성이 부실한 국가 권력은 국민들의 의식을 미분화하고 편향된 상태로 획일화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교육 이념을 강력하게 왜곡하게 된다. 결국 교육은 그 지향과 방법에 있어 반교육적인 성향을 깊이 노정한 채 결과 속이 모두 비틀어진 기형적인 상태로 구조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 구조는 1980년대에 들어서도 본격적인 경제 성장의 과실을 기반으로 하면서 더욱 더 심화되고 고질화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학교도서관은 광폭한 반교육적 이념과 논리의 구조에 침몰당하게 되어 견고하고 역동적인 전세대의 운동 의지를 꺾이게 된다. 학교도서관은 퇴화된 기관으로, 교육 현장에서 숨을 죽인 채 먼지 덮인 간판만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죽음의 교육이 지배하는 반교육의 폭압과 전횡 속에서 참교육의 의지를 담은 교육 기제로서 학교도서관은 광명한 새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가는 숨을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문서 자료〉

- 교육출판기획 편. 『분단시대의 학교 교육』, 서울 : 푸른나무, 1989.
 김동철. 「미래의 학교도서관」, 《도서관문화》 29권 6호(1988. 11·12), 34-37쪽.
 김신일 외. 『한국 교육의 현단계』, 서울 : 교육과학사, 1990.
 김인희. 『한국 교육의 역사와 문제』, 서울 : 문음사, 1994.
 김정환. 『인간화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1995.

- _____. 『전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7.
- 대한교육연합회. 『한국교육연감』 1977-1978,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1978.
- _____. 『한국교육연감』 1981-1982,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1982.
- 도서관문화 편집실. 「교육환경개선과 학교도서관-학교도서관이 교육환경개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특집 좌담회)」, 《도서관문화》 39권 4호(1998. 7·8), 23-30쪽.
- 문학교육연구회. 『학교야 학교야 뭐 하니』, 서울: 풀빛, 1989.
- 민중교육 편집위원회. 『민중교육』, 서울: 실천문화사, 1985.
- 성내운. 『분단시대의 민족교육』, 서울: 학민사, 1985.
- 손인수. 『한국교육사』, 서울: 문음사, 1987.
- 오욱환·최정실. 『미군 점령시대의 한국교육 -사실과 해석』, 서울: 지식산업사, 1993.
- 유상덕.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6.
- 이규환. 『한국 교육의 비판적 이해』, 서울: 한울, 1993.
- 이규환·강순원 편.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0.
- 이정희. 「학교도서관 기능의 전환기」, 《도협월보》 19권 10호(1978. 12), 6-10쪽.
- 전교조.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참교육」, 한국교육연구소 편, 『참교육 그 이해와 오해』,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3, 199-235.
- 조재후. 「독서지도 계획」, 《도협월보》 20권 6호(1979. 7·8), 19-21쪽
- 최태정. 「새마을 교육과 학교도서관」, 《도협월보》 14권 11호(1973. 11), 16-19쪽.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 (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6.
- 한국교육연구소. 『한국 교육사, 근·현대편』, 서울: 풀빛, 1993.
-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편, 『한국 현대 교육의 재평가』, 서울: 집문당, 1993.
- 한준상. 「제3세계 민중교육론의 한국적 수용 上, 下」, 《숙대신보》 1981. 9. 17, 24.
- Freire, Paulo. 『교육과 의식화』, 채광석 옮김, 서울: 중원문화, 1985.
- _____. 『교육과 정치의식-문화, 권력 그리고 해방』, 한준상 옮김, 서울: 학민사, 1986.
- _____. 『페다고자-민중교육론』, 성찬성 옮김, 광주: 도서출판 광주, 1986.
- Freire, Paulo 외. 『민중교육론 -제3세계의 시각』, 김쾌상 외 옮김, 서울: 한길사, 1979.
- Postman, Neil. 『교육의 종말』, 차동춘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99.

<대담 자료>

- 박태신 선생과의 대담, 1998. 2. 13, 14:00-16:30, 부산교육대학 앞 「늘노래 선교단」 사무실.
- 정해숙 선생과의 대담, 1998. 9. 23, 21:00-24:00, 경주 교육문화회관.
- 권양원 선생과의 대담, 1999. 1. 21, 13:00-15:00, 권양원 선생 자택(대전시 효동).